

### 국민의힘은 유세장 여성폭행사건 책임지고 사과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2일 충청권 선거유세 현장에서 다수의 남성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젊은 여성을 둘러싼 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야만적인 일이 발생했다. 공개장소에서 거리낌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수십 년 전 과거로 돌아간 듯 착각마저 들게 한다.

10여 명이 넘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선제 타격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외치는 젊은 여성에게 “계집X이”라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외쳤다. 급기야 윤후보 지지자들은 여성이 든 피켓을 빼앗고, 몸을 강하게 밀치는가 하면 점퍼를 잡아끌고 넘어뜨리는 위험한 행동을 벌였다.

심지어 대선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영상 촬영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여성에 대한 일방적 폭력과 비하 발언은 수분 간 이어졌다. 선거유세 현장은 후보와 국민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여성에 대한 무시,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없애버리는 여성혐오가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여성폭행사건 동영상은 23일 영국 공영방송사 BBC 서울특파원의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타전됐다. 선진국이며 문화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대통령 후보 유세현장에서 벌어진 야만적 행태로 인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될 경우 펼쳐질 세상을 미리 본 것 같아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유세장에서 벌어진 욕설 및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선거 현장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여성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의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투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장 정춘숙**